

증권사, 오프라인 지점 줄이고 MTS 투자 서비스·콘텐츠 강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증권사 20개社 영업점 수 724곳
2022년 3월 비해 14.72% 줄어

신영증권, MTS '그린' 개편
키움·토스증권, 지점 없어도 호실적
NH·신한투자증권, 오프라인 지점
고객 자산가 자산관리 중점 운영

증권사들이 오프라인 지점 수를 줄이고, 거점·대형화에 나서면서 고객자산가 대응 위주로 영업방식을 탈바꿈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영업점은 지점별 특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0곳 이상 국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 20곳의 영업점 수는 2022년 3월 849곳에서 724곳으로 14.72%(125곳) 감소했다. 2022년 9월 기준 838곳에서, 2023년 9월 778곳, 올해 9월 기준 713곳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분석 대상 증권사들의 임직원 수는 3.59%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점 통·폐합 움직임이 인력 조정 문제보다는 서비스 중심을 옮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디지털 발전 등으로 투자자들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 영업보다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채우고자 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휴대전화로도 폭 넓은 투자 활동이 가능한 만큼 시니어층도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오프라인 지점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구조조정보다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적용을 위한 업무가 강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MTS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증권사 이미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신영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그린(green)'을 개편했다. 고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MTS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투자 콘텐츠도 다양화시켰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이번 MTS 개편은 신영증권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고객들의 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에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리핏 2.0에 이은 디지털 솔루션 강화 시리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점 수 10곳을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 중 하나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디지털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지점에서 받을 수 있던 서비스 영역을 온라인에도 접목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MTS를 개편·개선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연달아 오픈시키고 있다.

리테일 강자로 불리는 키움증권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토스증권 등은 지점이 전무하지만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3분기 기준 키움증권의 누적 영업이익은 918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

다 10.3% 늘었으며, 토스증권 역시 해외 거래 부문에서 약진하며 3분기 총 매출액 119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17.9%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사들은 지점을 고객 자산가 자산관리(WM) 서비스 중점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점을 통합해 거점 지점·특화 지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반포WM센터와 방배WM센터를 '반포금융센터'로 통합해 오픈했으며, KB증권도 지난달 연신내라운지, 광화문금융센터를 합쳐 거점 점포를 대형화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사옥을 사학연금타워(TP타워)로 이사하면서 영업부를 제일 고층인 41층으로 올렸다. 접근성보다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은행 업무와 증권 투자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점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은행권 자산가들의 방문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고층에서 누리는 여의도 전경과 함께 프라이빗한 자산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현대차증권, 2000억 규모 유상증자 단행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

현대차증권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가 배정되며, 신주 3012만482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예정 발행금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6640억원이다. 우리사주조합에도 전체 발행 물량의 10%인 301만 2048주를 배정했으며,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구주주 대상 청약일은 25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미청약 잔여 주식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한다. 최종 발행가는 25년 2월 7일에 확정된다.

계열사 주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25.43%, 현대모비스가 15.71%, 기아가 4.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현대차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에 배정받은 물량의 100%를 청약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아 및 현대모비스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리테일 및 기업금융(IB)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이번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밸류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증권이 증권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코스닥협회가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우량기업을 제16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스닥협회

클래시스, '코스닥대상'서 국무총리상 수상

70여개국서 K-뷰티 선도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인 클래시스가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코스닥협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우량기업을 제16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코스닥대상은 2022년부터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돼 코스닥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경영 실적, 시장공헌도, 기술개발, ESG경영, 일자리 창출 활동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업실사를 통한 최

고경영자(CEO) 인터뷰 등 정성적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은 클래시스가 차지했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및 개인용 뷰티디바이스 화장품 사업을 전문 분야로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미용 의료 대중화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는 "국무총리상 수상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 영역을 커버하는 '세계 최고의 미용의료 플랫폼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원관희 기자

韓 증시 회복은 언제?... 내년 2분기 vs 연말

연말 국내 증시, 11·12월 상승세 경향
올해는 트럼프 2기로 약세장 전망
美 증시 강세 영향으로 반등 가능성도

미국 주요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연말 '산타렐리'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에 발맞춰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최근 한 달간 7.41% 상승했다.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도 각각 5.97%, 5.54%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1.43%, -2.0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연말 국내 증시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코스피는 10월 하락 후 11월과 12월 배당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세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리밸런싱 수급보다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라며 "12월은 홍보장세가 예상된다. 반등이 있더라도 기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 1분기에도 경제가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코스피는 4분기 실적 부진, 트럼프 취임 불확실성, 공매도 재개 우려 등의 영향

으로 1분기 중반까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 점진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 강세의 영향을 받아 국내 증시도 연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고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미국 채권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하락 안정화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하락과 계절적 요인이 결합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와 달러화 안정화,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으로 아마존 등 주요 소비주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